신안 '섬마을 인생학교' 설립 추진

청소년·중장년 세대별 맞춤형 자유학기제 운영
덴마크형 모델 도입…폐교 15곳 리모델링 계획

신안군은 사단법인 꿈틀리(이사장 오연호)와 지난 13일 서울 오마이뉴스 회의실에서 '덴마크형 인생학교'인 '섬마을 인생학교'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덴마크형 인생학교'는 청소년은 물론 청년과 중·장년이 1년 혹은 특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진로와 적성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사단법인 꿈틀리가 아시아 최초로 지난 2016년부터 강화도에 '꿈틀리 인생학교'를 개교해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과 사단법인 꿈틀리는 업무협약에 따라 신안 관내에 '덴마크형 인생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과 사단법인 꿈틀리는 ▲'덴마크형 인생학교'의 제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과 운용 ▲'덴마크형 인생학교'의 교육과정과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덴마크형 인생학교'의 인력 및 지식정보의 교류 ▲'덴마크형 인생학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공동 활용과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우량 군수는 "덴마크의 인생학교 프로그램인 에프터스콜레(청소년 인생학교)와 호이스콜레(성인 인생학교)는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됐다"면서 "틀에 짜인 훈련 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에 맞게, 스스로 진로와 인생을 설계하는 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004섬 신안은 덴마크식 인생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만큼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잠시 쉬었다가는 세대별 맞춤형 인생학교를 만들어 '섬마을 인생학교'인 신안으로 '행복 유학'을 오실 수 있도록 관내 폐교를 2018년도 11개소, 2019년도 4개소를 21억4천500만원에 매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덴마크형 인생 학교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 6명을 선발해 내년 1월14일 경에 참여할 계획이다.

오연호 꿈틀리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강화도에서 이룬 인생학교 3년의 경험이 신안의 선도적인 실천과 함께 하는 '섬마을 인생학교'에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겨울맞이 '초가지붕 이엉잇기' 소설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14일 함평군 월야면 내 달맞이수변공원(월야면 용월리 방축마을 소재)에서 한국고유전통인 초가지붕 이엉잇기 작업이 한창이다. 이엉잇기 작업이 한창인 월야면 달맞이수변공원에는 물레방아, 디딜방아, 초가집 등 예스로운 가을 농촌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함평군 제공

분양률 67% 영암 식품농공단지 '활력'

5개기업과 162억 규모 투자협약 고용창출 200명 기대

영암군이 영암식품농공단지 분양 67%를 달성하며 5개 기업과 162억 3천만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2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사계절쌀푸드 ㈜패랭이꽃 ㈜진흥브레이크 ㈜와츠 ㈜대아산업 등 5개 기업과 197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162억여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최근 도내 여타 산업단지 분양률을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속에서 영암의 신규투자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투자예정인 사계절쌀푸드(대표김동언)는 2019년 상반기 생산시설 완공을 목표로 37억을 투자해 우리농업의 근간인 쌀을 활용해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쌀을 양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패랭이꽃은 22억원을 투자해 전남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소금을 활용 건강한 식품첨가물로 재가공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는 분양률 67%을 달성했으며 금년 내 70%에 육박하는 분양률로 농공단지 활성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대아산업(대표 고창회)은 46억을 투자해 조선부품기자재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신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전문 생산업체인 진흥브레이크(대표 조병남)는 대불자유무역관리원 아파트형 공장에 23억을 투자해 전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동차브레이크 부품을 구축해 양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내에 투자한 기업이 조기에 지역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동평 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영암에 투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청취해 유관기관과 정책적 공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

곡성, 전남 일자리공모 선정

곡성군이 지난 13일 '2018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에 최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군은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에 적극 응모하고 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라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신중년 창업농 육성과 초기 창업기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과 '농업활용과 창업에 용이한 건설기계 조종 인력 양성 사업'을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각각 2억7천만원, 1억 2천만원이며 전남도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곡성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곡성=안용식기자

나주 시내버스 노선 일부 개편…주민불편 예상

주52시간 단축따라 불가피, 혁신도시-원도심 직선화키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노동시간(주52시간) 단축으로 나주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영 횟수와 구간이 변경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개정되면서, 관내 운수업체(나주교통, 광신여객)의 인력난 등 현실을 반영한 노선 개편이 추진된다.

현재 나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는 약 300여명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5-16시간에 이른다.

운수업체에 따르면, 내년도 7월 1일로 예정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와 현행 노선 및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서는 1일 2교대 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70여명의 인원을 충원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남지역 충원 필요 인력만 1천60명(업계추산)에 달하는 현실 가운데 인력 확보가 원활치 않은데다가 막대한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운수업체는 노선 및 운행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교적 수익성이 저조한 농촌마을이 노선 변경 및 운행시간 단축의 주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어 읍·면 지역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운행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식을 통해 배차 간격 감소, 광주 이동시간 단축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효율적인 노선 개편안(아래표 참조)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15-16일 빛가람동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성북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노선 구간 및 운영횟수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배차간격을 대폭 줄이고, 광주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며 "이달 15,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정부합동평가 대응 막바지 총력
완도, 부진지표 원인·대책 점검

완도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표담당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평가 기간이 2개월 남은 중요한 시점을 맞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3개 정량지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고, 장애인·여성·중소·장애인기업 등의 구매지표와 교육실적 등 협업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 중점 추진해 남은 기간 실적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군과 같이 많은 도서로 이루어진 특수성으로 인해 각 지자체별 동일 여건으로 평가할 경우, 불합리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함께 평가 방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식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 전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의 상징성이 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줄 것과 내년 합동평가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해남 매달 30만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60명 선발 최대 6개월 혜택

해남군은 구직활동 청년들이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 두드림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 18-39세 해남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 청년으로,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60여명을 선발하게 되며, 구직활동을 위해 소요된 학원비, 인터넷강의료, 교재 구입비 등이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 취업지원금은 중단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군청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팀(061-530-5353)으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인'졸업·중퇴 후 2년이내' 범위에 들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구직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책이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두드림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남=김병용기자

목포해경, 김 양식장 무기산 특별 단속

겨울철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해경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해상과 육상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유통·보관·사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독성물질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무기산(염산)을 잡태 제거 및 병충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김 양식장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 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행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 행위 ▲사용목적 무기산 운반·보관 행위 등이다. 한편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 또는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강효종기자

장성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모의훈련

경찰·소방서 등 업무공조 확립

장성군이 각종 재난과 재해 등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의 생물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 보건소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공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능력을 극대화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장성경찰서, 담양소방서 장성119안전센터, 31사단 화생방지원대대, 장성병원 등 유관기관에서 60여명이 참여했다.

조미숙 군 보건소장은 "생물테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의 모의훈련을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반복 연습을 통해 테러대응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